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Fayetteville, Arkansas
파견대학	University of Arkansas	파견기간	2017.08-2018.05
귀국여부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University of Arkansas는 Fayetteville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조그맣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년의 대부분이 매우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제가 있었던 기간 동안은 사상자가 난 총기사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Dickson St.(Bar 밀집지역)을 돌아다니지 않고 인적이 드문 거리를 피한다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캠퍼스 안에 자체적으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Fayetteville은 신창만큼이나 시골이라서 미국의 도시 생활을 즐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U of A에서의 여유롭고 한적한 캠퍼스 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학교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약 1.5배 정도 크기 때문에 처음에 캠퍼스에서 길을 헤매는 일이 종종 있지만 실제로 학기가 시작되면서 다니는 건물은 전공에 따라서 한쪽에 밀집되어 있거나 Old main(학교의 중심 시계탑 건물) 주변에 거의 있기 때문에 광활한 캠퍼스에 있는 건물들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U of A 캠퍼스의 풍경은 쾌적하고 아름답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시설은 좋은 편이고 가끔가다 몇몇 낡은 강의실도 있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주로 이용했던 Union(학생회관)과 도서관,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은 학생들의 편의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니언에 무료 게임센터도 있습니다! 꼭 가보세요.</p>

<p>2017-2학기 2018-1학기 수업</p>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강신청하기 전에 Rate My professor라는 사이트에서 교수님에 대한 평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은 수업이라도 교수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 질문이 있다던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보세요.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국제학생들을 잘 도와주십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교수님의 Last name과 호칭을 잘 맞게 썼는지,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썼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저는 첫 학기에는 두 개의 ELAC 과목과 두 개의 전공을 수강하였고 두 번째 학기에는 세 개의 전공과 하나의 교양과목 같은걸 들었습니다.</p> <p><b><u>2017 Fall</u></b>  <b>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b>  <b>Instructor: Kevin Johnson</b></p> <p>ELAC 과목 중 하나로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어휘와 표현 등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학기 말에 상품을 하나 정해서 그 물건을 팔기 위한 홍보를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카페에 가서 수업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교재와 함께 교수님이 준비해오신 자료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수님이 매우 위트 있으시고 인간미 있으셔서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입니다. 매주 숙제가 있지만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험은 두 번으로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성적을 주십니다. 추천합니다.</p> <p><b>Academic Writing Across Disciplines</b>  <b>Instructor: Wendy McBride</b></p> <p>들었던 수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ELAC 수업 듣는 국제 학부생 수준이라기 보단 국제 대학원생 수준에 더 가까운 수업입니다. 과제도 많을뿐더러 시험도 어렵고 참고문헌 5개 이상 참고해서 소논문을 써오라는 등 ELAC 과목치고는 어려운 과제 내주십니다. 이 수업은 거르는 게 나아요.</p> <p><b>HIST 2013: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since 1877</b>  <b>Instructor: Marie Cathryn Williams</b></p> <p>1877년 이후의 미국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도금시대, 남북전쟁 미국제국주의,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시민권 운동 등 미국 근 현대사의 중요부분을 다룹니다. 1877년 이전의 역사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과목을 수강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미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다소 버거울 수</p>
-------------------------------------	--

있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syllabus에 명시되어 있는 그날의 수업 주제를 한국어로 된 미국 역사 책에서 찾아서 읽고 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중간, 기말시험은 Paper로 대체합니다. 대신에, 매주 2-5페이지 분량의 Readings가 있고, Readings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을 Black Board Discussion에 올려야 합니다. 중간 기말 제외하고 Paper가 총 3개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전기를 읽고 쓰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매우 친절하시고 수업 준비를 착실히 해오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수업 관련해서 동영상도 보여주십니다. 미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 **SOCI 2013 - General Sociology**

**Prof: Marcella Thompson**

사회학 기초 과목으로 고등학교 일반사회 수준보다 조금 높습니다. 교재는 필요하지 않고, 시험도 없는 널널한 수업이었습니다. 매주 조별로 풀어야 하는 퀴즈 있어서 복습해가야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교수님이 수업 자주 휴강하시고(5번) 수업 들으면서 뭔가 얻어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쉽게 A학점 받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 **2018 Spring**

### **COMM 1003-001 FILM LECTURE**

**Prof. Russell Sharman**

영화 비전공자들을 위한 교양 수업으로 일주일에 한번 3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세시간 중에 두 시간은 영화 감상하는 시간이고 한 시간이 이론 강의 시간입니다. 매주 수업시간마다 대형강의실에서 큰 스크린으로 영화 볼 수 있는 부담 없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 Reading 관련해서 매주 퀴즈 있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말이 엄청 빠르고 중간, 기말시험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교재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본 영화 관련해서 강의하신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교수님 수업 하실 때 노트북에다가 필기 빠뜨리지 않고 해놓으면 시험 준비할 때 수월합니다. 영화 기법, 기술 등 영화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추천합니다.

### **HIST 1113: Institutions and Ideas of World Civilizations I**

**Prof: David Schieffler**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 매우 열정적이셔서 수업 준비를 완벽하게 해오십니다. 개인적으로 수업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수업을 수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5대 문명과 그리스로마 시대, 중세시대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 빈칸이 있는 수업자료를 업로드 해놓으시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기가 다른 과목보다 수월했습니다. 시험은

	<p>3번 있고 매주 Readings과 퀴즈도 있고 5장 분량의 Paper도 3개 있습니다. Paper 3개 중 2 개는 200-300페이지 책 읽고 쓰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공부도, 과제도 많이 해야 했던 수업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수업 듣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과제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교수님께 메일 보내보세요. 교수님께서 국제학생을 잘 배려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십니다.</p> <p><b>HIST 3683 (001)—Europe in the Nineteenth-Century</b>  <b>Instructor: Jason Phillips</b></p> <p>19세기 유럽의 역사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의 혁명과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유럽의 정치, 사회에 대해서 다룹니다. PPT도, 자료도 없는 수업이라서 100% 필기에 의존해야 해서 어려웠습니다. 시험은 중간 기말 2번 있고 Paper는 3개 있습니다. 하나는 Research Paper라 12장 분량이었습니다. 시험은 서술형이고 미리 Study Guide를 주십니다. 과제는 많지만 시험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점수에 후하십니다.</p> <p><b>PBHL 1103: Personal Health and Safety</b>  <b>Instructor: Hannah Coffman</b></p> <p>우리나라 보건수업이랑 비슷한 과목이었습니다. 매주 과제 있지만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의학용어가 많아서 공부하기 힘들었습니다. 시험은 객관식, 서술형으로 4번 있습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는 어렵지만 교수님께서 학기 말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성적 받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Holecombe Hall(국제학생 기숙사) 1층에 ISS라고 국제 학생들을 위한 Office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ISS 말고 다른 부서에 계시지만 ISS와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이곳에서 국제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만약 원한다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론이라고 ISS에서 일하시는 남자 직원 분이 계시는데, 10년 전에 순천향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가셨던 분이라 공감대도 잘 형성되고 힘든 일 있다고 말하면 발벗고 도와주십니다. 학기에 한두 번 카메론이 국제학생들을 모아서 달라스 같은 곳으로 짧은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꼭 가세요. 저렴한 비용으로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ISS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I Family, I Friend, Campus cousin 등 국제학생과 현지인을 매칭 시켜주는 프로그램이</p>

	있는데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I Family 신청해서 한 가족과 진짜 가족처럼 자주 교류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녁초대도 많이 받고 크리스마스 같은 미국의 명절도 같이 보내고 경기도 관람하고 개인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지만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덜 춥습니다. 대신에 Fayetteville의 여름은 우리나라처럼 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아니라 바짝바짝 탈 것 같은 찜찜한 더위 입니다. 개인적으로 습한 한국의 여름보단 나았습니다. 그러나 자외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여름 필수 물품입니다. Fayetteville은 거의 10월까지 여름이라 여름이 매우 긴 편입니다. 여름은 매우 덥지만 8월 OT 기간에 학교에 도착하면 장마철이라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학교 냉방시설이 춥다고 느껴질 만큼 강하게 작동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유의하세요.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되고 덜 춥습니다. 작년에는 12월 첫 주까지 가을-겨울 그 중간이었어요. 눈이 쌓이는 것도 두 번 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도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서 두꺼운 겨울 옷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Fayetteville의 날씨는 가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Fayetteville 날씨를 하루에 사계절이 있다고도 하는데 자주는 아니었지만 종종 일교차가 크고 몇 시간 사이에 날이 좋았다가 천둥번개가 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면서 날씨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었어요. 보통의 경우 청명하고 맑습니다.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화창한 날들을 여러 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캠퍼스를 걸으면서 뭉게구름이 진 하늘과 분홍빛 노을을 자주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U of A에 오기 참 좋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맑아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캠퍼스는 안전하지만 남녀불문하고 어느 곳이던지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늦은 밤, 학교 주차장에서 총 든 강도가 지나가는 학생에게 돈을 갈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학교 알림 시스템이 모든 학생들에게 문자나 전화, 또는 메일을 보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캠퍼스 내에 자체적으로 경찰이 있어서 출동도 빠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은 개인의 총기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간에 총기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총기사건의 위험을 그만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대처가 훌륭하기는 하지만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9시 이후에 캠퍼스 밖을 돌아다닌 적이 손에 꼽습니다. 그런 면이 한국과는 달라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내다 보면 또 금방 적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두 학기 모두 국제학생 기숙사인 Holecombe Hall에 살았습니다. Holecombe Hall 바로 맞은편에 Quad라는 식당이 있고, 5분만 걸어가면 Baby Walmart라고 부르는 작은 월마트(월마트에 한국 라면 있어요.)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Old main과도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에 도보로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최고의 기숙사입니다. 홀컴은 지하까지 총 4층 건물이며 지하에는 주방과 TV를 볼 수 있는 거실과 세탁실이 있고 1층은 국제 학생을 위한 오피스와 로비가, 2층은 남자 기숙사, 3층은 여자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2인 1실이며 순천향대학교 기숙사보다 넓습니다. 시설은 나쁘지는 않지만 최신식의 기숙사는 아닙니다. 방에는 2개의 책상, 침대, 서랍장, 불박이 옷장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층마다 2개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방 밖에 있어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룸메이트의 경우, 기숙사 신청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룸메이트를 맺어줍니다. 저는 미국인 룸메이트였지만 국제학생 기숙사이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온 학생들과 룸메이트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운 좋게도 교환학생을 하는 기간 동안 룸메이트랑 제일 친했고, 룸메이트랑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제 주위를 보면 룸메이트랑 트러블이 있었던 친구들이</p>

	<p>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룸메이트가 있을 경우, 혼자서 공공 장소 말고 담당자에게 말해서 룸메이트를 바꾸세요. 저는 두 학기 내내 홀컴에서 살았지만 첫 학기 끝나고 다른 기숙사나 캠퍼스 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첫 학기에는 홀컴에서 사는 것은 추천 드립니다. 홀컴의 가장 큰 매력은 1층에 ISS Office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홀컴에서 주로 열립니다. 격주로 매주 홀컴 1층에서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국제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열리니 참여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p>
<p>식사</p>	<p><i>학교 Meal Plan ( O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기숙사에 살면 Meal Plan 신청이 필수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Meal Plan은 일주일에 10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고 주말에는 외식을 하거나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기숙사 맞은편에 있는 Quad 건물에 있는 다이닝 홀을 이용했습니다. 학교 내에 3개의 다이닝 홀이 있어서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메뉴도 조금씩 다 달라요. 또 오후 4시 반이 넘으면 유니언에서 밀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니언에는 트루버거, 브리또, 칩필레, 스시 등등이 있습니다. 6시가 넘으면 스타벅스 건물에 있는 아칸소 그린이나 슬림치킨 등을 밀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Meal Plan을 신청하면 매 학기마다 플렉스라고 학교 매점이나 카페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00불 정도 들어와요. 플렉스는 식당에서도 이용 가능 합니다. 학교 식당 음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만족했습니다. 뷔페식이고 식당 안에 메인 요리 외에도 샌드위치 코너, 오믈렛 코너, 볶음밥 코너, 디저트류, 와플 기계, 아이스크림 기계, 시리얼 등등이 있어서 처음엔 이것저것 먹다가 살찔어요. 피자,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 파스타, 닭 요리 등등 메인 요리들은 고칼로리 이고 솔직히 말해 한식만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가끔가다가 셰프들이 와서 여러 나라 음식 해주는데 한식 비슷하게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도 식당에 샐러드와 과일이 다양하게 있어서 건강하게 먹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식이 먹고 싶을 때에는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House of Taste라는 한식당에 가거나, H 마트라고 한인 마트인데 Fayetteville 주변에는 없고 인터넷으로 컵반 같은 거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미국 올 때 캐리어에다가 작은 사이즈 고추장, 참기름, 컵반 같은 거 몇 개 넣어가지고 오면 매우 유용합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땅덩어리 넓은 미국에는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큰 월마트나 쇼핑몰, 영화관을 가고자 한다면 유니언에 있는 Red 셔틀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됩니다. 셔틀버스는 무료입니다. 저는 Red버스만 이용했지만 다양한 노선의 버스들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차를 렌트해서 가거나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XNA공항은 학교에서 30분 정도 거리이고 Uber를 이용한다면 50불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 밖에 그레이하운드 같은 고속버스도 있지만 대체로 위험하고 시간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가는 편: 130만원 오는 편: 90만원	편도로 끊었습니다.
비용	<p><i>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i></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p>보험료, 기숙사비, 밀플랜 등등의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학기 시작 되면 나오고 이 비용을 U of A로 지불 해야 합니다. Flywire라고 국제학생들을 위한 송금 시스템이 있는데 폰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손쉽게 입금 가능합니다.</p>	<p>1학기 5,826.50 USD</p> <p>2학기 5,283.50 USD</p>
보험료	<i>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i>	Fees에 포함
숙소		Fees에 포함
식비		Fees에 포함
교통비		Fees에 포함
책값		1학기당 100-120 USD

기타1	한달 생활비	300-500 USD
기타2	여행 비용	4,000 USD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저와 같은 학교로 교환을 가는 학생 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자세히 썼지만 사실 지내다 보면 하나씩 다 알게 될 것들이라 지금 당장 모른다고 걱정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도착해서 그곳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겪을 수 없었을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미리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지내면서 인종차별을 종종 당하실 거예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몇 년 전에는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했는데 인종차별이 아직도 있을까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이지 미국 내 인종차별은 어느 곳이나 존재합니다. 아칸소 주는 Deep South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흑인 차별이 아주 심했던 곳으로 KKK 본거지가 있습니다. 흑인만 차별할 것 같지만 "유색인종"이라면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한국 친구는 캠퍼스를 걷다가 한 흑인이 "Open your eyes"라고 동양인을 조롱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Dickson St. 걷다 보면 운전자가 저를 향해 동양 여자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 걸 본 적이 꽤 있고 심지어 뉴욕 여행할 때에도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이니즈"라고 손가락질하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 거예요. 그래도 당당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인종 차별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인종차별을 당할 때 맞대응하고 싶겠지만 그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 사람 눈을 쳐다보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못 본 척 무시하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만약 영화관이나 식당처럼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면 그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 본사에 이메일로 항의하면 됩니다.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게 분명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화려해 보이기만 했었던 미국의 이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는 인종차별 당하면서 한국에서의 저를 돌아보았어요. 한국에서 지낼 때 저 또한 인종차별 주의자가 아니었는지를요.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환 생활하면서 교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친절할 거예요. Southern Hospitality라고 미국 남부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골 사람들처럼 정도 많고 따뜻한 면이 있어요. 남부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뉴욕 같은 대도시에도 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저는 이미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10개월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한 것이 마치 긴 꿈을 꾸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를 굉장한 경험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미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지내면서 공부하기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수업의 반도 못 알아 먹어서 스스로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여기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수강하는 전공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사학과 전공은 읽어야 하는 책도 많고 한 과목당 Paper가 한 학기에 3개가 기본이라 2학기에는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기숙사에 있는 시간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해 본적이 없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인 특유의 저력이 발동되었던 것 같아요(도서관에서 공부하는걸 보면 보통 아시아인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학생 오기 전에 상상했던 자유로운(?) 미국 대학 생활과는 다소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던 제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공부 말고도 ISS나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공수업이 타이트했음에도 미국에서의 대학생활이 한국에서의 대학생활보다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시험이 많고 과제도 많지만 절대평가라서 남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어요. 그리고 보통 미국인들이 여유, 휴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 속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지냈어요. 저는 미국의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음식을 먹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쓰면서 외국인으로서 생활 하는 게 힘들 테지만 앞서 말했듯이 좋은 이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누리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영어 배우러 교환학생 왔지 미국인처럼 잘하면 왜 왔겠어요. 2개 국어를 서툴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미국인들 중에 제 2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손에 꼽습니다. 참고로 회화공부는 Live Academy English나 날라리 데이브 같은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보면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제 후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교환학생 생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Old Main



캠퍼스



캠퍼스 저녁노을



캠퍼스에서 해먹



Union 앞에서 행사



Union 안에서 행사



풋볼 게임



Dickson St. 바이크 축제



Square에서 조명 행사



Famer's Market



New York



New Orleans